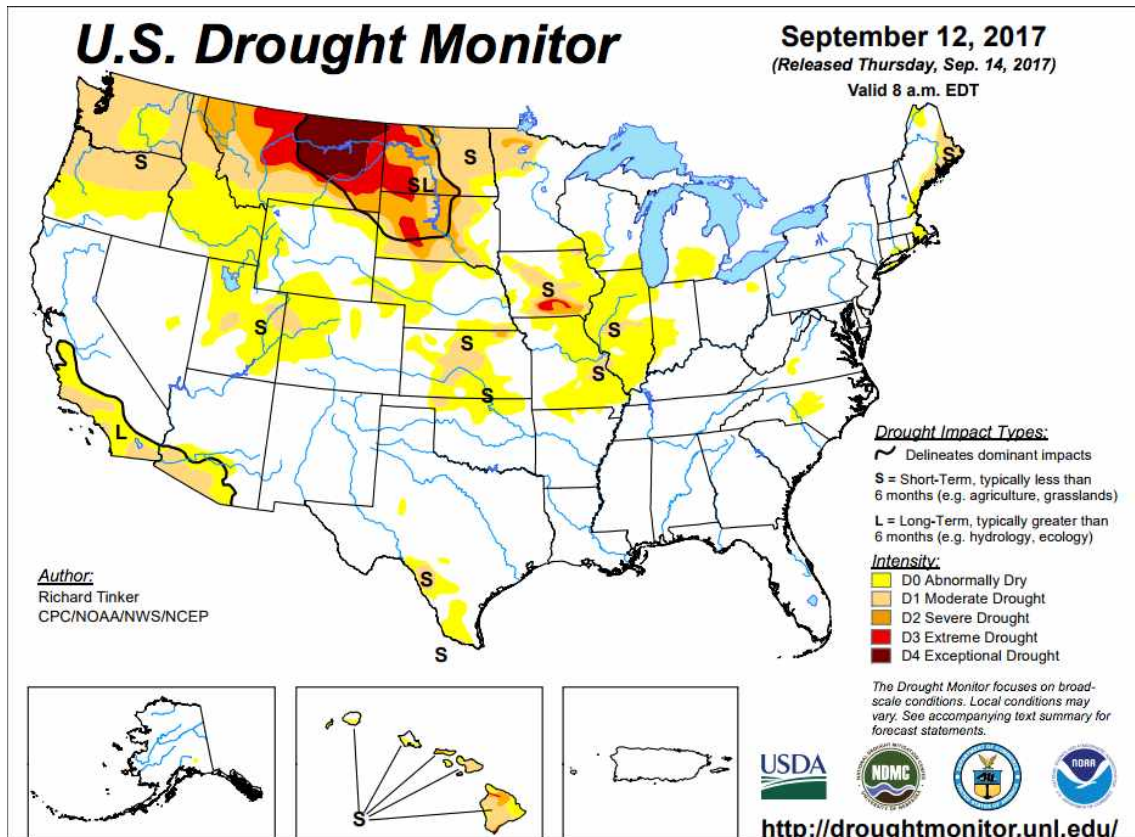


9월 1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38)

□ 미국 기후 현황(9/10~9/16)

9월 10일 허리케인 Irma가 플로리다에 상륙했다. 이날 오후 Marco Island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비, 바람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Cudjoe Key를 지날 때에는 풍속이 130mph를 기록했고, 2017년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등급 허리케인에 의한 산사태가 두 번 발생한 해가 되었다. Irma로 인해 Marco Island에 산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최고 풍속은 115mph를 기록했는데 상륙했을 당시의 풍속에 비해서는 풍속이 조금 약해진 상태였고, 등급도 3급으로 낮아진 상태였다. 허리케인 Irma는 플로리다 반도 서쪽을 통과했지만,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는 주 전역에서 발생했다. 오렌지나 사탕수수 재배지들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곳곳에서 농지가 침수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알라바마, 조지아, 캐롤라이나 등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면화와 견과류 재배지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는 선선한 날씨를 보인 반면, 북부와 서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 □ 농업 현황 요약(9/11~9/17)

대평원을 비롯해 뉴 잉글랜드, 주요 옥수수 재배지 전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다. 반면, 남동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6°F 정도 낮았다. 미주리와 남동부의 허리케인 피해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1.5인치 내외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플로리다, 조지아 및 남 캐롤라이나에서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지난 한 주간 5인치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 □ 세계 기후 현황(9/10~9/16)

■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 자리잡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유럽 전역에서 비가 내렸고, 평년에 비해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다. 중부와 북부 일대에서는 10~8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프랑스 북부 및 북동부, 이탈리아 중부 및 북부, 폴란드 남부 등에서는 이번 비로 여름작물의 수확작업과 겨울밀의 파종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반면, 독일 북동부에서부터 폴란드 북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린 덕분에 농작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뭄도 악화되고 있어 겨울작물의 파종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성부 및 서부 유럽 일대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낮았고,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대 5°C 정도 높았다.

■ 구소련(서부): 흑해 주변 지역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고기압이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러시아 서부로 느리게 이동하면서 맑은 날씨가 찾아왔지만 더위도 동반해 낮 최고기온이 30~36°C까지 올랐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는 지난 60일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겨울밀의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북부의 Caucasus 일대에서도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동해안으로 최대풍속이 95knot에 이르는 태풍 Talim이 북상했는데, 이후 태풍은 9월 17일 방향을 틀어 일본 남부에 상륙했고, 상륙 당시의 풍속은 60knot로 약해져 있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와 일본 일대에서는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벼 재배지 일대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태풍으로 인한 강우량은 다음 주 기상정보에서 제공할 예정임). 중국 북부 평원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양쯔강 동부 지역에서는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10~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중국 북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낮은 날이 이어졌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1~1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뭄을 해소해주지는 못했다.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작물의 수확량은 평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여름작물의 파종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주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남호주 등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이번 비는 밀 재배지 일대에만 국한되었으며, 남동부 호주 전역에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호주의 밀 재배지 일대에서도



2주 연속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온은 서호주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다.

■ 아르헨티나: Buenos Aires를 비롯해 Entre Rio, Corrientes 등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중부의 La Pampa, Cordoba, Snta Fe 남부 등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북서부의 Santiago del Estero, Jujuy, Chaco 동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서부와 남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다소 낮은 날씨가 이어졌고, 밤 동안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해바라기의 파종작업은 14일에도 종료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남부의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북부의 Parana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밀의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비가 한두 차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Maro Grosso, Mato Grosso do Sul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중서부의 Goias 및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Sao Paulo, Minas Gerais 등 사탕수수, 커피 재배지 일대에서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